광주서부교육지원청, '온라인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강화 연수'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158명 대상

교육효과 위해 교내 업무담당교사 협의체 마련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11월23일~12월4일 2주 동안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등 총 79교에 배치된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1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지난 23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특수교육보조인력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이해와 능동적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연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업무담당교사 협의체를 마련했다. 연수 영상은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사회복무요원의 역할 및 복무 ▲학교 현장 사례를 반영한 Q&A 등 세 개의 주제로 구성됐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장애 관련 법률,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인권침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해결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은 "장애학생을 곁에서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장애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강진군 작천면, 노인일자리사업 활동 교육

어르신 96명 대상

강진군 작천면(면장 조경언)은 지난 18일 작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0년 하반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96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활동교육을 실시했다. 혹한기 대비 겨울철 건강관리 및 안전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거리 유지,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겨울철 심혈관계 질환예방, 노인일자리 직무교육, 안전· 소양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시 실외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참여자의 부주의로 인한 골절사고가 가장 빈번한 점을 감안해 골절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도 함께 교육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강진군 보건소 서현영 주무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며 영하권의 날씨에 심장질환 유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랭질환에 대비해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섭취를 권장한다. 음주나 흡연 후 차가운 아침 공기를 접촉할 때 심장질환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도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반기 노인일자리사업 활동교육 장면

강진=김영일 기자

무안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큰 호응'

쾌적한 시설에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기

무안군이 쾌적한 시설을 갖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8월 일로, 현경, 해제, 운남 4개 읍면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음향 등 시스템을 갖춘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관리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해당 보건지소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레크레이션 강사들을 활용하여 건강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진도군, '코로나 블루' 극복 지원 '심리지원 키트' 배포

심리적 어려움 완화 위해 전문가 심리 상담 실시

진도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증의 조기 심리회복을 위해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마음건강 서비스를 강화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 우울은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감염병 감염 우려, 사회적 고립, 외출 자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 안정을 위해 심리지원 키트를 제작해 배포했고, 심리지원 키트는 코로나19 현장대응요원, 경찰서, 진도119 안전센터 관계자 250여명에게 배부되었다.

진도=조상용 기자

여수시-롯데케미칼 · 첨단소재 '워킹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모자가정 대상

여수시는 롯데케미칼·첨단소재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해 모자가정 워킹맘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친다.

여수시와 롯데케미칼·첨단소재는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워킹맘&자녀 힐링캠프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해 이달 30일까지 대상 가구를 모집하며, 한 가구당 최대 295만 원 한도 내에서 최종 10가구를 선정·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1,881원), 만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자가정으로, 신청가구가 많을 경우 주거유형 우선순위를 ▲자가 ▲영구임대아파트 ▲임차 순으로 선정한다.

사업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롯데케미칼·첨단소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도움이 꼭 필요한 모자가정의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